

## 『조선기담』에서 구술과 기술, 전통과 근대의 상호작용\*

류정월\*\*

<차 례>

1. 서론
2. 『조선기담』의 전통성과 근대성의 위계적 관계
3. 『조선기담』과 전대 야담의 관계
4. 『조선기담』의 역사전승과 역사의식
5. 『조선기담』 혼종성의 위계

### <국문초록>

본 연구 대상은 그 원제목이 『반만년간조선기담』(이하 『조선기담』으로 표기)으로, 한글 활자본으로 되어 있다. 1922년에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하였으며, 발행자는 안동수(安東洙)다. 『조선기담』은 총 104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 갈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일단 신화와 민담, 야담과 설화가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점을 『조선기담』의 텍스트적 특징이라고 본다. 본고의 논의는 『조선기담』의 혼종성이 어떤 과정에서 생성된 것인지, 이런 이질적 양식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조선기담』에는 전대의 야담과 근대의 야담이, 고대와 근대와 근세의 역사가 망라되어 있다. 이야기와 풍속이, 신화와 역사가, 정치사와 세태사가 뒤섞여 있다. 『조선기담』에는 내용의 다양성 뿐 아니라 서술 방식의 다양성도 존재한다. 전사와 변개, 모방과 창조, 번역과 수집(채록) 등 서로 다른 서술 태도와 방식들이 『조선기담』의 또 다른 혼종성을 구성해 낸다. 본고는 또한 이러한 다양성을 구술과 기술, 근대와 전통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조선기담』이 전통성, 역사성, 기술성에 우위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 5B5A07048649)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를 두고 있음을 읽어낸다.

□ 『조선기담』, 전통성, 역사성, 기술성, 근대, 야담, 혼종성.

## 1. 서론

본 연구 대상은 그 원제목이 『반만년간조선기담』(이하 『조선기담』으로 표기)으로, 한글 활자본으로 되어 있다. 1922년에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하였으며, 발행자는 안동수(安東洙)다. 『조선기담』은 총 104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견 잡다해 보이기도 한다. 『조선기담』에는 한문으로 된 전대 야담을 재수록한 내용도 있으나, 구전된 설화도 있다. 『조선기담』은 “구활자본 야담”으로 분류되기도 하고<sup>1)</sup>, “구전 설화집”<sup>2)</sup>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조선기담』 가운데에는 전대 야담과 명확한 영향 관계에 있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전대 야담집에서 볼 수 없었던 신화류 이야기들도 수록되어 있으며, <구술과 고양이와 개>, <머슴살이 한 왕자>와 같은 구전 설화의 모티프를 차용한 이야기도 있다. 갈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조선기담』의 특징이기도 하다. 본고는 신화와 민담, 야담과 설화가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점을 『조선기담』의 텍스트적 특징이라고 본다. 본고의 논의는 『조선기담』의 다양성이 어떤 과정

- 
- 1) 이윤석·정명기, 『구활자본 야담의 변이 양상 연구-구활자본 고소설의 변이양상과 비교하여』, 박이정, 2001, 김준형, 『19세기 말~20세기 초 야담의 전개 양상』,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165~208쪽, 김준형, 『근대전환기 야담의 전대 야담 수용 태도』, 『한국한문학회연구』 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595~631쪽, 김준형, 『근대전환기 패설의 존재양상 : 1910~1920년대 패설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1집, 2005, 289~329쪽.
- 2) 최인학, 『해제 『조선기담(朝鮮奇譚)에 대하여』, 『조선조말 구전설화집』, 박이정, 1999, v.

에서 생성된 것인지, 이런 이질적 양식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조선기담』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로 쓰였다는 것이다. 당시 출간된 야담들은 대부분 국한문혼용체였다. 『오백년기담』(1913), 『실사총담』(1918), 『기인기사록』(1921), 『박안경기』(1921), 『대동기문』(1926) 등 『조선기담』 이전 출간된 대부분의 야담집, 『조선기담』 이후 출간된 야담집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선기담』이 한글로 출간된 것은 유표적인 일이다.<sup>3)</sup> 이는 단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대중들을 위한 상업적 선택이었는지, 그 외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발행자 안동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조선기담』에는 저술 배경이나 의도를 알 수 있는 서문이 없다. 1923년 <동아일보>에 두 번에 걸쳐 『조선기담』 광고<sup>4)</sup>가 실렸다. 이때에도 『조선기담』이 유사 이래 오천년에 달하는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뿐, 저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안동수가 책 판매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지명도를 가진 인물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1920년대 활동한 “안동수(安東洙)”에 대한 자료는 단편적으로 존재하며 세 가지 유형으로 추려진다. 하나는 교원 안동수로, 1910~20년까지 경기도 교동보통학교 교사, 1921~22년까지 경성여자고등학교 교원, 23년~31년까지 이리농림학교 교원을 지낸 인물에 대한 것이다. 이 교육 경력

3) 『조선기담』은 한글로 되어있으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는 않다.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는 1877년 영국 목사 존 로스(John Ross)가 펴낸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 띄어쓰기를 본격화·대중화시킨 것은 1916년 <독립신문>이다. 그러나 이후 출간된 많은 한글 텍스트들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한글모범보기> 역시 한글이기는 하되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 국한문혼용체가 함께 있던 시대에는 한글을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읽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1933년 조선어학회는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반영하였다. 띄어쓰기는 이때부터 공식화된다.

4) <동아일보>, 1923. 01. 15. 1면, <동아일보>, 1923. 01. 24. 3면.

을 가지는 안동수라는 인물이 한 명인지, 아니면 동명이인들이 여럿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재직 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그 관등이 7급에서부터 6급, 5급, 4급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경력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안동수에 대한 자료는 1936년 『환각의 거리』 등으로 문단활동을 시작한 문인 안동수에 대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도 작품 활동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생몰연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조선기담』을 쓴 안동수와 소설가 안동수를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조선기담』이 1922년 편찬된 것을 고려하면 1936년 소설가로 활동하기까지 저술의 공백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1930년대 소설가 안동수와 1922년 『조선기담』을 쓴 안동수는 다른 인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 자료는 조선어문회의 활동이 담긴 <한글모죽보기>이다. 여기에는 1907년부터 1917년 사이에 이루어진 조선어문회의 활동을 연혁, 회록(會錄) 등 8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였는데, 주시경이 양성한 후진들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 이 550여 명의 명단<sup>5)</sup> 가운데에서 안동수를 찾을 수 있다.

이 세 번째 자료는 첫 번째 교육자 안동수와 동일인일 수 있고 두 번째 소설가 안동수와 동일인일 수 있으며 전혀 다른 제 3의 인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가 안동수와 조선어문회의 안동수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활동시기에 있어 적어도 20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어문회 안동수와 교육자 안동수는 같은 인물일까? 이 역시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교원으로서의 안동수의 경력이 시작되었던 시점을 고

5) 대표적인 인물로 최현배(崔鉉培), 신명균(申明均), 김두봉(金斗奉), 권덕규(權惠奎), 정열모(鄭烈模), 이규영(李奎榮), 장지영(張志暎), 정국채(鄭國采), 김원우(金元祐) 등이 있다.

려하면, 이 둘은 활동시기가 겹친다. 주시경 역시 교원으로 조선어문회 활동을 했다. 교원으로 한글 운동을 한 인물들은 그 외에도 꽤 있었다.<sup>6)</sup> 이 두 집단 사이의 친연성을 생각하면 세 번째 자료와 첫 번째 자료는 동일인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한다.

교육자 안동수가 조선어문회의 안동수와 동일인이라 해도 그가 『조선기담』을 쓴 안동수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내릴 수 있는 것은 『조선기담』의 발행자가 교육자이거나 조선어문회 활동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기담』을 쓴 안동수가 교육자이고 조선어문회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조선기담』이 한글 편찬된 것은 상업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고유의 일이 갖든 언어를 사용하고자 했던 민족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발행자 안동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조선기담』에 대한 기존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기담』만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 없으며, 구활자본에 대한 일반적 연구, 전대 문헌 설화와 근대 야담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조선기담』을 언급한 것이 전부이다.<sup>7)</sup> 본격적 연구는 아니지만 최인학은 『조선기담』 해제에서 수록된

6) 1926년 『조선동화대집』을 쓴 심의린(沈宜麟; 1894~1951) 역시 한성고등보통학교 사범부를 졸업하고 교원생활을 하면서 한글 연구에 매진하였다.

7) 이윤석·정명기, 『구활자본 야담의 변이 양상 연구-구활자본 고소설의 변이양상과 비교하여』, 박이정, 2001, 김준형, 『근대전환기 야담의 전대 야담 수용 태도』, 『한국한문학연구』 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624~625쪽. 『조선기담』의 연구는, 새로운 활판 인쇄 기술로 간행된 야담과 고소설을 대상으로 그 원천을 탐색하고, 원천과의 변이 양상을 밝히는 일련의 작업 가운데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 야담과 고소설이라는 전통시대의 문학이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에 어떤 변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조선기담』에 한정되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또한 원천 자료와의 차이를 밝히고는 있으나 그것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변이 양상에 대해 오락성과 교훈성, 재미와

半島民衆에게는  
업지 못할  
此書

五十年  
間의朝鮮史를  
小説式으로記한者

●定價金 六十錢 ●

●送料(書留) 十一錢 ●

歷史는  
何 ?

奇譚  
은  
何 ?

本書の内容은  
一 半島民衆의  
不識한 吾國  
歷史를 以來  
五十年에 經  
過한 長久한 史  
實에 對한 孝  
子, 節婦의 奇  
異한 事蹟을  
小説式으로 記  
한 奇譚의 良書

半島民衆에게는  
업지 못할  
此書

五十年  
間의朝鮮史를  
小説式으로記한者

●定價金 六十錢 ●

●送料(書留) 十一錢 ●

歷史는  
何 ?

奇譚  
은  
何 ?

本書の内容은  
一 半島民衆의  
不識한 吾國  
歷史를 以來  
五十年에 經  
過한 長久한 史  
實에 對한 孝  
子, 節婦의 奇  
異한 事蹟을  
小説式으로 記  
한 奇譚의 良書

發賣元

朝鮮圖書株式會社

京城府聚志洞六〇番地  
電話本局一九五四番  
振替京城八二五五番

半島民衆에게는  
업지 못할  
此書

五十年  
間의朝鮮史를  
小説式으로記한者

●定價金 六十錢 ●

●送料(書留) 十一錢 ●

歷史는  
何 ?

奇譚  
은  
何 ?

本書の内容은  
一 半島民衆의  
不識한 吾國  
歷史를 以來  
五十年에 經  
過한 長久한 史  
實에 對한 孝  
子, 節婦의 奇  
異한 事蹟을  
小説式으로 記  
한 奇譚의 良書

半島民衆에게는  
업지 못할  
此書

五十年  
間의朝鮮史를  
小説式으로記한者

●定價金 六十錢 ●

●送料(書留) 十一錢 ●

歷史는  
何 ?

奇譚  
은  
何 ?

本書の内容은  
一 半島民衆의  
不識한 吾國  
歷史를 以來  
五十年에 經  
過한 長久한 史  
實에 對한 孝  
子, 節婦의 奇  
異한 事蹟을  
小説式으로 記  
한 奇譚의 良書

發賣元

朝鮮圖書株式會社

京城府聚志洞六〇番地  
電話本局一九五四番  
振替京城八二五五番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논의도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약호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조선기담』의 양상을 설명하기에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내용을 ① 효·열녀 8화, ② 여인의 지혜 10화, ③ 동물(귀신)퇴치 5화, ④ 동물의 은혜 5화, ⑤ 해몽(解夢) 3화, ⑥ 말의 재치 9화, ⑦ 주술시합 4화, ⑧ 구제(救濟) 5화, ⑨ 신화·역사적 사건 17화, ⑩ 기타 38화로 구분하였다.

『조선기담』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근대로 설화 연구의 지평이 넓혀진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연구사에서 누락되었던 『조선기담』에 관한 기초적 사실을 확인하면서, 『조선기담』의 구성하는 특징을 혼종성으로 보고, 이러한 혼종성이 어떤 형성 과정을 통해 생성 되었는가 추론하기로 한다.

## 2. 『조선기담』의 전통성과 근대성의 위계적 관계

『조선기담』은 일관된 질서를 읽어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다.<sup>8)</sup> 『조선기담』의 혼종성은 그 형식적 부분에서부터 전경화된다. 도입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25화 경상도 진주군 상봉리에 사는 정관수가 같은 군 최씨녀로 더불어 부부가 되어 금슬이 화락하더니, 지금부터 몇 해 전에 정씨가 우연히 병이 들어

50화 한 시골 노인이 여러해만에 서울 왔다가 모동 사는 전일 친구를 찾 고자 하여 그 동리에 이른즉 골목이 모두 변하고

---

8) 김준형 역시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기담』에 “수록된 이야기들에서 어떤 일관된 질서를 읽어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혼재” 되어 있다고 본다. “효자 이야기, 질투가 심한 부인 이야기, 약밥의 유래, 열녀 이야기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첨가한 이야기 등 그 성향이 다단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기담』은 흥미로움을 전제로 한 잡박한 내용을 혼재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김준형, 『근대전환기 야담의 전대 야담 수용 태도』, 『한국한문학회연구』 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624~625쪽.

87화 거금 수년 전에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사는 박규춘의 무남독녀 옥사는 방년 십칠 세에 화용월태가 옛 문자의 침어낙인이라도 도저히 그 아름다움을 기록키 어려울 미인으로

25화 <살을 베어 남편의 병을 구하다>에는 “지금부터 몇 해 전”이라는 시간적 표지가 있어서 이 이야기가 당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병을 “악마의 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인이 해결책을 모색할 때 “하늘로부터 복음이” 내린 것과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전대 야담을 전사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수집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50화 <얼개화의 폐단이라>에서는 “청년학생”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한 시골 노인이 버릇없는 청년학생을 만나 욕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찾고 있던 친구의 손자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청년학생의 신분을 “어느 초등과 졸업생으로 중등과 일년급”이라고 설명한다. 근대 교육 제도의 표지를 보면 이 이야기가 당대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87화 <미인이 백과 결혼하다>는 “거금 수년 전”에 라는 시간적 표지가 있어 당대 이야기임을 암시한다. 시작부에서는 인물과 시간보다는 공간의 표지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경상도 진주군 상봉리”,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등 지명이 도, 군, 리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나타난다. 주변에서 수집한 이야기들은 지명을 구체화함으로써 인물을 구체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기술할 때에는 논평을 첨부하기도 하다.

전대 야담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조선기담』은 인물의 이름 대신 지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때로는 논평을 첨부하기도 한다. 인물이 사는 곳을 통해 인물을 설명하는 방식은 『용재총화』와 같은 초기 문헌 설화집에서 민담류 이야기를 전승할 때부터 나타난다.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은, 『조선기담』에서는 특히 당대의 이야기를

전승할 때, 이야기의 객관성이나 실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생각된다.

96화 문곡 김수항의 부인 나씨는 명촌 나양좌의 누이라

6화 역관 홍순언이 만력 병술년 간에 사신을 따라 북경에 들어가니 그때 마침 신설된 청루 하나 있으되 문 위에 현판을 걸고 크게 쓰기를 은자 천냥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는지라.

23화 고려 원수 이방실은 공민왕 때 명장이라. 소시에 용력이 절륜하더니 일찍 서해도에 놀다가 노상에서 한 남자를 만난즉

38화 양승지 회수가 유람하는 벽이 있어 한 필 말과 한 사람 종으로 멀리 북관에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변 땅에 이르러 주막에서 쉬고자 하더니

52화 정동계 온이 소시에 동중 선배 두어 사람과 더불어 회시 보러 서울로 올라갈 때 도중에 한 소교가 있어

이 이야기들에서 양반 주인공이 등장할 때에는 인물의 호와 성명, 관직 등이 함께 제시된다. 배경이 되는 지명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북경, 서해도, 북관 등으로 대략적으로 언급된다. 이렇게 『조선기담』에는 시작부에서 구체적 공간을 통해 인물을 기술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 호, 성명, 관직명으로 인물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주로 전통 야담을 전사한 이야기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전통 야담을 전사한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인물명만 대략 밝히면서 시작할 때도 있다. 그럴 때에도 이들 이야기는 도, 군, 리의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당대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공간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대의 이야기들을 제시할 때에는 인물의 호, 관직명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는다.

이는 『조선기담』의 원천이 단일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조선기담』은 당대의 구전 이야기를 수집해서 기록하는 방식과 전대의 야담을 보고

재기록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기담』은 수집과 전사라는 두 가지 원천을 가지고 있다. 『조선기담』에는 전통 야담을 참조하면서 전사한 이야기들이 당대 구전된 이야기보다 월등히 많다. 앞서 제시한 각 편 외, 당대 구전된 이야기들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조선기담』은 설화집이라기보다는 야담집의 성격을 가진다. 이제 『조선기담』이 참조한 전대 야담에 대해 살펴보자.

### 3. 『조선기담』과 전대 야담의 관계

#### 1) 『청구야담』 등 전대 야담의 전사

전통 야담 가운데 『조선기담』이 전사한 대표적인 야담이 무엇일까? 이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있다.

『조선기담』 63화 <경을 읽어 호환을 면케 하다>는 화담의 제자가 호환의 위기에서 처녀를 구한 이야기로 일종의 호랑이 퇴치담이다. 문헌으로 전승되는 서화담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여우 퇴치 이야기와 호랑이 퇴치 이야기가 있다. 여우 퇴치 이야기는 『동패』, 『파수록』, 『청야담수』에 실려 있다. 호랑이 퇴치 이야기는 『계서야담』, 『청구총화』, 『청구야담』, 『동야휘집』, 『아동기문』, 『쇄어』에 실려 있다. 유일하게 『동패락송』에는 두 가지 유형의 서화담 이야기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조선기담』은 호랑이 퇴치 이야기를 수록한 야담 계열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패락송』,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휘집』 등에서 『조선기담』에 수록된 판본과 유사한 판본을 찾아볼 있다.

다른 화담의 이야기를 고려하면 『조선기담』이 『동패락송』을 계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기담』에는 호랑이를 퇴치하는 서화담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서화담 이야기를 90화 <사발물에서 용을 낚다>에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서화담 일화가 나온다. 첫 번째는 아우와 낚시 내기를 하는 것인데, 아우는 물 한 사발에서 금붕어를 잡아내고 화담은 황룡을 낚는다. 두 번째는 중과 잠 안 자기 내기를 하는 것인데, 중은 십오 일을 견디고 화담은 그 뒤로도 수십 일을 더 견딘다.

『청구야담』, 『계서야담』, 『기문총화』에는 호랑이 퇴치담만 있을 뿐 서화담의 다른 일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기담』과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 일화를 하나의 설화로 구성한 야담을 찾아보기는 힘들다.<sup>9)</sup> 다만 『동패락송』은 두 가지 일화를 하나의 설화로 구성하기는 하되, 『조선기담』과는 전혀 다른 일화들을 수록하고 있다. 『조선기담』의 발행자가 『동패락송』을 직접 전사했다면 화담의 일화를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구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패락송』과 『조선기담』은 직접적 관계가 적어 보인다.<sup>10)</sup>

『조선기담』 16화 <아내 덕에 공신이 된다>는 인종반정 때 아내의 혜안으로 공신이 된 이기축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전대 야담을 참조하면

9) 근대 구활자본 야담 『실사총담』 3화에 화담과 중의 잠 쫓기 시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기담』이 전대 야담뿐 아니라 당대의 야담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0) 『기문총화』, 『계서야담』, 『청구야담』에서는 화담에 대해 일반적 기술을 하면서 일화를 시작한다. 화담 서경덕이 박학다문 하여 천문지리와 술수지학에 밝았다거나 화담이라는 물가에 살아서 그것으로 호를 삼았다는 언술이 있고 나서 제자를 시켜 호랑이를 퇴치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조선기담』은 90회에서 화담에 대한 두 가지 일화를 하나로 묶어 소개하면서 화담이 유불선에 통하고 술법을 알지 못하는 게 없었다는 등 대략적 소개를 한다. 만약 이 발행자가 다른 야담집을 그대로 전사했다면 화담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63화에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조선기담』에서는 90화에 가서야 화담에 대한 개략적 인물 소개를 한다. 63회에서 호랑이를 퇴치한 것은 서화담이 아닌 그 제자이지만 90회에서 술법의 주인공은 서화담이다. 이를 고려하면 63화는 화담에 대한 일반적 기술 없이도 이해 가능하다. 서화담에 관한 일반적 언술을 93화로 이동시켜 배치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이를 보면 『조선기담』의 발행자는 단순 전사 이상의 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아내의 신분이 기생인 경우와 주막집 딸인 경우이다. 『청구야담』은 전자를, 『계서야담』과 『기문총화』는 후자를 따른다. 『조선기담』은 『청구야담』처럼 이기축의 처를 기생으로 그린다. 그 외 다른 세부적 내용 역시 상이하다. 『조선기담』과 『청구야담』에서는 여성의 신분이 기생인데 『계서야담』과 『기문총화』에서는 주막집 딸이며, 『조선기담』과 『청구야담』에서는 이기축이 김정언에게 가지고 간 책이 『통감』인데 『계서야담』과 『기문총화』에서는 『사략』이며, 『조선기담』과 『청구야담』에 나오는, 김정언이 화를 내는 대목이 『계서야담』과 『기문총화』에는 없다. 『조선기담』이 『기문총화』와 『계서야담』보다는 『청구야담』의 영향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텍스트의 문면을 비교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조선기담』 6화 <천금을 버려 효녀를 구하다>를 보면 『조선기담』이 어떤 작품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조선기담』: 역관 홍순언이 만력 병술년 간에 사신을 따라 북경에 들어가니 그때 마침 신설된 청루 하나 있으되 문 위에 현판을 걸고 크게 쓰기를 은자 천냥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는지라. (6화)

『청구야담』: 역관 홍순언이 만력 병술년 간에 사신을 따라 황성에 들어가니 그때 마침 새로 생긴 청루 하나 있어 현판에 은 천 냥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다. (譯官洪純彦 當萬曆丙戌年間 隨節使 行入皇京 時有新起一靑樓 而門楣上 懸一牌書 以非銀千兩 不許擅入, 114화)

『계서야담』: 홍순언은 젊어서부터 뜻이 크고 의기가 있었다. 일찍이 연경에 가다가 통주에 이르러, 밤에 청루에서 놀다가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극히 뛰어난 미색이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주인 노파에게 교환(交歡)하기를 청하였다. (洪純彦少落拓有意氣 嘗赴燕到通州 夜遊靑樓 見一女子 極有殊色 意悅之 托主嫗要歡, 59화)

『기문총화』: 광국공신 당릉군 홍순언이 젊은 시절에 통역관으로 중국의 북경에 들어가 통주에 이르렀다. 그 곳 술집의 주인 할미에게 중국에서 으뜸가는 미인을 보고 싶다고 하니, 할미가 흰 명주옷을 입은 부인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 (光國功臣唐城[陵]君洪彦純[純彦] 少時以譯官入京到通州 謂主嫗願見中原一色 嫗引一叉鬢 縞衣草草愁色滿面)

이 이야기는 홍순언이 중국의 미인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미녀는 본래 창기가 아니었다. 부친이 공금을 쓰고 갚지 못해 형을 당하게 되자 몸을 팔아 부친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홍순언은 수 천금을 모아 여자에게 주고 관계 하지 않고 떠난다. 『조선기담』과 『청구야담』의 이야기는 시작부가 동일하다. 홍순언의 신분은 역관이며, 사신을 따라간 해는 병술년으로 나타난다. “천금을 버려 효녀를 구하다”라는 『조선기담』의 제목 역시 『청구야담』의 제목, “연천금홍상서의기(捐千金洪象胥意氣)”와 유사하다. 반면 『계서야담』과 『기문총화』에는 홍순언의 신분이 표기되지 않거나 다르게 나타나면, 시간적 배경 역시 “일찍이”, “젊은 시절에” 등으로 대략적으로 나타난다. 공간적 배경도 북경이 아니라 통주로 되어 있다. 『계서야담』과 『기문총화』의 해당 작품에는 제목이 없다. 이 역시 『조선기담』, 『청구야담』과는 다른 점이다.

『조선기담』 27화 <매를 맞고 칼을 면하다>도 『계서야담』이나 『기문총화』가 아니라 『청구야담』과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야담』의 제목은 “홍상서수정면인(洪尙書受挺免刃)”인데, 『조선기담』 해당 작품의 제목부터가 『청구야담』과 유사하다.

『조선기담』: 홍판서 우원이 과거하기 전에 동협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는 이미 저물고 주점은 멀리 있는지라, 잘 곳이 없어 방황하더니 길가

에 마침 두어 집 되는 마을이 있거늘 그 사정을 말하고 유숙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하더라.

『청구야담』: 홍상서 우원이 과거하기 전에 동협 길을 가다가 해는 이미 저물고 주점은 멀리 있는지라, 잘 곳이 없어 우두커니 서 있더니 길가에 마침 몇 집 되는 마을이 있거늘 사정을 말하고 유숙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하였다. (洪尙書宇遠 於未第時 作東峽之行 日勢已晚 而店舍稍遠 無以趨程及站 路傍偶有數家村 言其事情 而請留宿焉 主人許之 206화)

『기문총화』: 홍우원이 젊었을 적 고향 가는 길에 한 주막집에 들렀다. 남자 주인은 없고 다만 여주인만 있었는데, 나이는 이십여 세 가량으로 용모가 제법 아름다웠으나 음탕하고 더러운 자태가 얼굴에 넘쳐 났다. (洪宇遠少時 作鄉行 住一店幕 無男子主人 而只有女主人 年可二十餘 容貌頗美 其淫穢之態 溢於面目, 3권, 291화)

『계서야담』: 홍우원이 젊었을 적 고향 가는 길에 한 주막에 들렀다. 남자 주인은 없고 다만 여주인만 있었는데, 나이는 이십여 세 가량으로 용모가 제법 아름다웠으나 음탕하고 더러운 자태가 얼굴에 넘쳐 났다. (洪宇遠少時 作鄉行 入一店幕 無男子主人 而只有女主人 年可二十餘 容貌頗美 其淫穢之態 溢於面目, 78화)

『계서야담』과 『기문총화』에서는 인물의 이름만 제시하는데, 『청구야담』과 『조선기담』에서는 관직과 인물을 함께 제시한다. 『청구야담』과 『조선기담』에서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의 “동협”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관직과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일치하는 것을 보면 『조선기담』이 기억을 통해 전대 야담을 기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기문총화』와 『계서야담』에는 주막이 위치한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야담』과 『조선기담』에서는 홍우원이 사정을 말하고 유숙하기를 청하는 대목이 있지만 『기문총화』와 『계서야담』에서는 홍우원의 사정을 생략하고, 우연히 들린 주점에서 만난 음녀를 묘사하는 데 치중한다. 『기문총화』와

『계서야담』은 서로 비슷하지만 이 두 텍스트는 『조선기담』·『청구야담』과는 다르다.

첨언하자면, 『조선기담』은 『청구야담』 가운데에서도 한글본이 아니라 한문본을 번역·전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기담』 27화를 보면, 홍우원이 유숙하기를 청하고 나서 “주인이 허락하였는데”라거나 “계집이 마음을 시험코자 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마지못하여 나아가”라는 부분은 나온다. 이는 모두 한글본 『청구야담』에는 없으며 한문본에만 나타나는 구절이다. 『조선기담』에서는 홍우원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음녀가 “연소한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있어 일점 정욕이 없으니 고자가 아니거든 어찌 그리 풍취도 없는고”라고 말한다. 한글본 『청구야담』에서는 이 부분이 “소년 남아가 어찌 이렇듯 무미하뇨?”라 축약되어 나타나는데 비해 한문본 『청구야담』은 『조선기담』과 그 문면이 같다.

## 2) 당대 구할자본 야담과의 관계

『조선기담』은 전대 야담 가운데 『청구야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조선기담』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에서는 『청구야담』에 수록되지 않은 각 편도 있다. 57화 <여승은 바라는 바>는 김효성의 여색과 재치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이다. 김효성이 여색에 탐닉하자 그 부인이 승려가 되겠다고 말한다. 김효성은 자신이 많은 여자들과 상관했으나 아직 여승은 상관한 적이 없으니 부인이 여승이 된다면 바라던 바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는 없는 것으로, 그 원전은 『청파극담』이다. 원래 『청파극담』에는 제목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조선기담』의 찬자가 『청파극담』이나, 이를 수채하고 있는 『대동야승』을 직접 전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57화와 같은 이야기가 1913년 출간된 구할자본 야담

『오백년기담』에 보인다. 이 두 텍스트는 문면이 거의 유사하다. 『오백년기담』에서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이승고소원(尼僧固所願)”이다. 『조선기담』의 제목은 이를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조선기담』의 일부 이야기들은 이렇게 당대 유통되던 구활자본 야담의 영향을 받았다. 『청과극담』 혹은 『대동야승』과 동일한 이야기가 『조선기담』에 수제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야기가 『오백년기담』과 같은 당대의 구활자본에 수록되었기 때문이다.<sup>11)</sup> 여러 편의 구활자본 야담 중 『오백년기담』과 『조선기담』의 관계는 특히 긴밀하다. 80화 <함흥차사>, 46화 <형을 불러 적장을 베다>(계월향 이야기)<sup>12)</sup>, 47화 <적장을 안고 물에 던지다>, 14화 <아내 덕으로 공신이 되다>, 9화 <상민의 딸이 재상의 부인이 되다>, 60화 <자라를 살리고 아들 팔형제를 두다>, 52화 <시비가 상전의 원수를 갚다> 등은 모두 『오백년기담』과 영향관계가 있는 작품이다. “조선기담”이라는 제목 자체가 “오백년기담”과의 관계를 암시한다.

<아랑설화>를 보면 『오백년기담』이 『조선기담』에 미친 영향력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조선기담』의 아랑 설화는 『오백년기담』과 가장 유사하다. 그렇다고 『조선기담』이 『오백년기담』을 수동적으로 전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두 텍스트는 후반부 범인 검거 지점이 다르다. 『오백년기담』에서 범인에 대한 단서는 원혼이 든 “붉은 기”다. 『조선기담』에서는 백일장(시제: 영남루 달밤에 이상사를 만나서 전생의 원통한 빛을 말한 다)을 열어 범인이 스스로 죄를 실토히도록 한다.

아랑설화는 『청구야담』, 『동야회집』, 『고금소총』, 『일사유사』, 『오백년

11) 『오백년기담』에 이러한 잡록들이 수록될 수 있었던 연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면을 할애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2) 계월향 이야기는 <평양지>나 <임진록>에 일부 보이지만 『조선기담』과 가장 유사한 것 역시 『오백년기담』이 아닐까 한다.

기담』 등의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sup>13)</sup> 『조선기담』에서 “아랑”은 밀양 부사 윤후의 딸로 나오고, 설원자는 이상사이며 살인자는 주기로 나온다. 특이한 것은 설원자인 이상사가 아직 과거 급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산대천을 유람하다가 영남루에서 원귀를 만나 하소연을 듣는다는 것이다. 이상사는 원귀의 도움으로 장원급제하여 밀양 부사를 자원한다. 그리고 백일장을 여는데 이때 낭자의 혼이 접해서 범인은 사건의 전말을 적게 된다. 그의 이름은 통인으로 있던 주기였다.

『조선기담』 유사한 전대 문헌은 『오백년기담』이다. 『오백년기담』의 아랑설화는 『동야회집』과 유사하다. 『동야회집』에서는 이상사가 영남루에서 귀신을 만나 원통한 사정을 듣게 된다. 이때 원혼은 붉은 기(朱旗)를 들고 나타났다. 이상사는 김부사에게 귀신의 사연을 전해서 “주기”라는 자를 찾아 자백을 받는다. 그 뒤에 이상사는 급제하여 이름을 떨친다. 『오백년기담』은 『동야회집』에서 간접적 설원자의 역할을 하는 이상사를 직접적 설원자로 변개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조선기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대표적 문헌 설화 가운데 『오백년기담』과 『조선기담』의

13)

번호	제목	출처	출간 시기
1	영남루에서 원정을 호소하다	『조선기담』	1922년
2	雪幽冤婦人識朱旗	『청구야담』	19세기
3	南樓舉朱旂訴冤	『동야회집』	19세기
4	伸妓冤妖	『명엽지해(고금소총)』	17세기
5	冤鬼雪恨	『교수잡사(고금소총)』	미상
6	逢李上舍雪冤債	『성수패설(고금소총)』	1830년경
7	제목 없음	『금계필담』	1873년
8	嶺南樓尹娘子	『오백년기담』	1913년
9	嶺樓貞娘 井邑冤女	『일사유사』	1916년

문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아랑설화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아랑설화 문헌설화 목록은 확충이 필요하다.

아랑설화에서만 원혼이 직접적 설원자를 과거 급제 전에 만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조선기담』의 아랑설화가 『오백년기담』의 영향 하에 쓰인 것은 사실이  
 지만, 『조선기담』의 범인 검거 과정은 『오백년기담』과 다르다. 『오백년기  
 담』의 이상사는 원혼이 들고 있던 붉은 기를 보고 아전의 명부를 조사하  
 여 당시 통인으로 있던 주기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여기에는 추론의 과정  
 이 생략되어 있다. 『조선기담』에서는 “영남루 달밤에 이상사를 만나 전생  
 의 원통한 빛을 말하다(嶺南樓野逢李上舍說前生冤債)”라는 시제로 백  
 일장을 연다. 남자의 혼이 접한 범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실토하게 된  
 다. 『조선기담』은 『오백년기담』을 참고하면서 범인이 밝혀지는 과정의 긴  
 장감을 높이고자 하였다.<sup>14)</sup>

앞서 언급한 『조선기담』 14화 <아내 덕으로 공신이 되다>는 『청구야  
 담』의 영향권에 있으나 당대 다른 야담을 참조하면서 텍스트의 세부를 수  
 정한 것이다. 『조선기담』의 작품 제목, “아내 덕으로 공신이 되다”는, 『청  
 구야담』의 해당 작품 제목 “책훈명양처명감(策勳名良妻明鑑)”과 유사하  
 다. 『오백년기담』의 제목은 “생년작명(生年作名)”으로 “기축”이 태어난  
 해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목과 전체적 내용에  
 있어서 『조선기담』은 『청구야담』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조선기담』이  
 『청구야담』과 다른 지점은 바로 공신이 된 남성의 이름이다. 『조선기담』  
 에서 이 인물은 “이기축”이라고 나오지만 『청구야담』에서는 “박기축”이  
 라고 나오며 『오백년기담』에서는 성 없이 그냥 “기축”으로 나온다. 인물  
 의 이름이 “이기축”이라고 나오는 것은 『계서야담』, 『기문총화』이며, 또

14) 이러한 변경이 모두 『조선기담』의 독창적 설정으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조선  
 기담』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구활자본 야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 구활자본 야담에 대한 연구가 총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밝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의 영향권에 있다고 판단되는 『실사총담』이다. 이를 보면 『조선기담』은 『청구야담』을 전사하면서, 다른 전대 야담이나 당대 야담집을 참조하여 정보를 교정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내 덕으로 공신이 되다>가 시사하듯, 『조선기담』이 참조하고 있는 당대 야담이 『오백년기담』 한 권만은 아니다. 10화 <신부 없는 방에 신랑이 홀로 자다>는 질투 심한 흥언필 부인 송씨 이야기이다. 이는 『금계필담』과 『동상기찬』에 나오며 『청구야담』에는 없는 작품이다. 『조선기담』에서는 『금계필담』이 아니라 『동상기찬』을 전사한다. 『금계필담』과 『동상기찬』은 모두 손이 잘린 여종 이야기로 시작한다. 『금계필담』에서는 동네 사람이 질투심 강한 부인을 경계하기 위해 부인의 손을 자른다. 『동상기찬』에서는 송질 어머니가 남편을 질투해 여종의 손을 자른다. 『조선기담』의 이 대목은 『동상기찬』을 따르고 있다.

나아가 『조선기담』은 근대 야담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수록할 레퍼토리를 정하거나 레퍼토리를 종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가령 『오백년기담』과 『실사총담』에는 황희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오백년기담』은 “네 말도 옳다”는 일화만 수재하고 있고, 『실사총담』은 “누렁소와 검은 소” 이야기만 수재하고 있다. 『조선기담』에는 이 두 편이 나란히 실려 있다. 『조선기담』은 『오백년기담』이나 『실사총담』 등 당대 야담을 참조하여 이야기의 레퍼토리를 정하고 관련 이야기를 모은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조선기담』은 전대 야담 뿐 아니라 동시대 구할자본 야담을 여러 편 차용하면서 이야기의 정보를 교정하거나 이야기를 종합한다.

『조선기담』은 『오백년기담』과 같은 당대 야담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표면에 드러낸다. 이들은 역사전승과 역사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가령 『오백년기담』이나 『실사총담』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중심으로 실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sup>15)</sup> 『조선기담』은 단군

에서부터 시작되는 반만년 역사를 서술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조선기담』에서 다루는 역사의 범위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려 한다. 『조선기담』이 전대의 야담과 근대의 야담을, 전통적 이야기와 근대적 이야기를 수합한 것은 바로 반만년의 역사를 아우르기 위한 명시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 4. 『조선기담』의 역사전승과 역사의식

##### 1) 기억을 토대로 한 구전 신화와 고대 역사의 기록

『조선기담』은 우리의 최초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기록인 <단군신화>를 수록하고 있다. <단군신화>에 해당하는 21화 <꿈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삼국유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꿈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에는 환웅이 데리고 온 무리에 대해서 풍백, 우사, 운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 무리 삼천과 더불어” 내려왔다고 한다. 또 환웅이 꿈과 범에게 쫓과 마늘이 아니라 “선약 이십 매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꿈과 호랑이가 동굴에 사는 것으로 명시되지도 않는다. 후반부 역시 다른데 『조선기담』에서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하사 군신 부자 남녀의 구별을 정하며, 의복 음식 궁실의 제도를 가르쳐 나라가 크게 다스리니, 그 자손이 서로 전하여 역년이 일천십칠년”에 이르렀다고 한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1500년간이고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는 때의 나이가 1908세로 나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15) 『오백년기담』에서는 문익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선조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실사총담』에서는 김유신, 소지왕, 김부식, 정지상, 정유경, 강감찬, 김대운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조선조의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다. <실사총담>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DB.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조선기담』에는 <단군신화>뿐 아니라 <혁거세 신화>, <김알지 신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조선기담』은 『청구야담』 등의 전대 야담과 『오백년기담』 등의 당대 야담을 근간으로 하면서, 구전되는 신화와 전설을 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담의 영향권에 있는 이야기들은 인물, 시대, 장소 등을 전사한 것이기에 고유명사가 대부분 일치한다.<sup>16)</sup> 반면 <단군신화>, <혁거세 신화> 등은 전사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기에 문헌과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기담』에서 주몽, 박혁거세, 김알지 등 신화적 인물의 서사를 다루는 방식은 독특하다.

『조선기담』 71화 <알 속에서 아이가 나오다(1)>는 박혁거세 이야기이다. 『삼국유사』 <기이편> 혁거세왕조에는 여섯 개의 부족과 촌장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는데 『조선기담』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다. 다만 여섯 마을의 하나로 돌산 고허촌을 언급하고, 그 촌장을 소벌 공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가 수풀 사이에 말 한 필이 꿰어얹아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보니 큰 알이 한 개 있었는데 알이 깨지고 그 안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다는 것이다. 『조선기담』의 이 이야기에는 알영과의 혼인담이 없다.

72화 <알 속에서 아이가 나오다(2)>는 주몽 이야기이다.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조와는 달리 부여 국왕 금와가 하백의 딸 유화를 얻어 부인으로 삼았는데 일광으로 잉태하여 알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해모수는 등장하지 않는다.

73화 <알 속에서 아이가 나오다(3)>는 석탈해 이야기이다. 『삼국유사』

16) 『청구야담』과의 관계가 확인되지만 고유명사에서 변화가 보이는 경우도 있다. 『청구야담』에서는 “어떤 재상”으로만 언급된 인물을 『조선기담』에서는 “정태화”로 환치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준형, 「근대전환기 야담의 전대 야담 수용 태도」, 『한국한문학회연구』 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624~625쪽 참조.

<기이편> 탈해왕조는 계림 동쪽 아진포의 노파가 떠나려 온 배 안에 궤가 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들어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가 왜 궤 안에 넣어져 신라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사연을 말한다. 아이의 이야기-함달과와 그 왕비가 알을 낳고 불길하다고 해서 궤 안에 넣어 버려진 것-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건이다. 『삼국유사』에는 시간의 역전이 나타난다. 『조선기담』은 다과나국 왕이 여국왕의 딸에게 장가갔다고 하고 있으며 그 이후 알을 낳고 궤 속에 넣어 버리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있던 탈해와 호공의 대결이나 물을 먼저 마신 심부름꾼을 혼 낸 일화, 탈해의 뼈를 동약에 봉안한 이야기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74화 <궤 속에 작은 아이가 있다>는 김알지 이야기이다. 계림에서 닭우는 소리를 듣고 호공이 가보니 금빛 나는 궤가 있고 그 아래에서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궤를 열어보니 작은 남아가 있어서 왕이 거두고 이름을 김연지(방언으로 작은 아이라는 뜻)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조선기담』은 “김알지”를 “김연지”로 기록한다. 이후에 그가 태자로 책봉되었으나 왕위에 오르지 않았거나 신라의 김씨가 알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언술은 생략되어 있다.

71화~74화는 모두 간단하게 축약되어 있다. 알이나 궤 속에서 아이가 나타난 사건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 이후 혼인, 자손, 죽음 등의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다. 또한 알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삼국유사』와는 다르게 서술된 경우도 있다. 석탈해의 아버지 이름이 다르며, 주몽도 해모수의 아들이 아니다. 또한 『조선기담』은 거의 시간적 순서에 의한 기술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직접 화법으로 기술한 부분이 『조선기담』에서는 대부분 생략되거나 요약되어 있다. 이는 『조선기담』의 저자가 신화를 기술할 때에는 문헌을 참조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참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네 편의 이야기에는 <알 속에서 아이가 나오다>라는 동일한 제목이 잇따라 붙어 있다. 이를 보건대 『조선기담』의 발행자는 이 이야기들이 “난생 모티프”의 차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 속에서 아이가 나오다>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발행자가 이 이야기들을 신화의 장르적 특성과 연결해 생각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뒤에는 75화 <사슴의 덕으로 대대 재상이 되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고려 태조 때 서신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는 나이 팔십에 혈육이 없었는데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준다. 그 날 밤 꿈에 신인이 나타나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데 감사하고 자손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한다. 과연 신일에게 아들(서희)이 생기고 후손은 대대로 재상을 한다. 74화가 김알지 이야기로 신라 시대의 사건이라면 75화는 고려 태조 때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두 이야기는 시간 순으로 읽을 수 있다. 74화와 75화는 아들이 없던 이에게 아들이 생기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유사하다.<sup>17)</sup>

『조선기담』에서 <단군신화>는 21화에 배치되어 있다. 다른 신화들이 71화부터 서술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신라 시조들의 이야기와 <단군신화>는 위상이 다르거나 장르가 다른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화에서 74화까지, 난생 이야기 뒤에는 고려와 조선의 역사적 사건들이 서술된다. 『조선기담』의 저자에게 난생을 모티프로 하는 고대의 서

17) 70화 <산중에서 홀로 병법을 배우다>는 김유신이 말을 배어버리고 병법을 익히는 이야기이다. 그러고 나서 71화부터 신라 시조들의 탄생에 대해 기술한다. 71화부터 대체적으로 86화까지는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 전까지 이야기는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효자, 열녀, 충신 등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아마도 70화, 김유신의 이야기가 신라 시조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서술하게 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사는 신화로 생각되기보다는 역사로 생각되었다. 『조선기담』에서 난생은 아들이 생기는 과정으로, 즉 고대 왕조를 시작하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 2) 시대에 따른 이중적 기술 방식

조선 건국의 역사는 77화부터 시작된다. 77화 <황룡을 위하여 백룡을 쏘다>는 이성계의 고조부이야기로 꿈에 노인이 와서 백룡을 죽이기를 부탁하고 꿈이 깬 후 백룡을 쏘아 떨어뜨리니 다시 꿈에 황룡이 와 사례하면서 은혜를 갚겠다고 한 이야기이다. 이는 <용비어천가>와 유사하다. 78화는 태조가 나무귀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어 귀신들의 환심을 사게 된 이야기이다. 79화는 태조가 부친상을 당하고 길지를 얻으려 할 때 나옹대사와 무학대사를 만나 잘 대접하고 왕후가 태어날 터를 얻었다는 이야기이다. 81화는 태조가 꿈에 고려 태조를 만나 왕씨를 멸하면 양값음을 하겠다고 말을 듣고 왕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이야기는 대부분 시간 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태조가 건국하기까지의 기이한 일들을 강조한다. 이 기이한 일들은 귀신의 감응, 풍수의 발현, 현몽의 예시 등과 관련된다. 건국은 태조의 개인적 의지가 아니라 초월적 의지이자 예정이었음을 보여준다.

82화는 이후 나오는 단편적 이야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태조가 정도전의 말을 듣고 국도를 정하니 무학이 오 년이 지나지 못해 찬탈지화가 생기고 이백 년을 지나 판탕지란(板蕩之亂)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한 이야기이다. 순차적으로 배치된 이후 이야기에서는 “찬탈지화”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한 “찬탈지화”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말하는 것이지만 문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기담』의 역사적 사건들은 바로

계유정란 직후로 이어진다. 83화 <능에서 밤에 곡성이 나오다>에서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세조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바로 세자가 죽고, 세조는 분노하여 현덕왕후의 능을 파낸다. 82화에서 말한, 이백 년 뒤 나라가 망할 만한 “판탕지란”은 임진왜란을 암시하는 것이지만 역시 『조선기담』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84화 <오십세 신랑과 십오 세 신부>는 정효준의 이야기로, 그는 자신의 조상 외에 단종, 현덕왕후, 단종왕후 세 명의 신주를 집에 모셨다. 그는 사십 칠 세에 상처를 세 번이나 하고 아들이 없었는데 단종이 네 번째 신부의 부모 꿈에 나타나 정효준에게 딸을 주기를 종용한다. 85화 <사불범정이라>는 이항복이 병든 동네 친구의 침소에서 악귀를 물리치고 친구를 연명시킨 이야기이다. 86화 <남편은 살리고 자기는 죽다>는 송도의 한 상인이 병자호란 때 마장군에게 잡혀가 총첩이 된 아내를 찾아 간 이야기이다.

이로 보건대 『조선기담』은 71화부터 86화까지, 고대에서 병자호란까지의 일을 시대 순에 따라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기담』은 태조와 태종, 세조, 단종, 병자호란 등 조선초기와 중기 역사에 지면을 할애한다.

“반만년간조선기담”이라는 책의 원제목을 염두에 두면, 발행자는 조선시대까지 전승된 이야기들을 종합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던 듯하다. 여기에는 시조의 탄생, 국가의 재건과 흥망성쇠에 얽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조선기담』은 고대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며 거시적인 역사적 사건을 환상적인 서사로 전달한다. 근세 역사의 서술 방식은 이와 다르다. 근세의 역사, 가령 왕자의 난이나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 등에 대해서는 독자가 이미 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서술이 진행된다. 『조선기담』에서 추구하는 역사는 고대의 공식적이며 거시적인 역사이며, 근세의 비공식적이며 미시적인 역사이다. 고대 역사는 초월적 의

지에 의한 환상적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근세의 역사는 죽은 자의 원한 관계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풍수에 의해 예정된 것이기도 한다. 이들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라는 점에서 기담이다. 또한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만 일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기담이기도 하다.

『조선기담』은 일견 파편적으로 보이는 일화들을 역사적 흐름 속에 배치한다. 『조선기담』은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 본다는 점에서 역사를 유기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한 인과성과 유기성은 초월적 의지, 죽은 자의 원한, 풍수의 예정 등을 추동력으로 한다. 여기에는 이성계, 논개, 계월향, 이항복 등 영웅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또 다른 초월적 의지나 예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얻을 뿐이다. 『조선기담』에서 인간은 신적 의지와 예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 5. 『조선기담』 혼종성의 위계

『조선기담』은 『청구야담』을 기반으로 하여 전대의 전통적 야담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오백년기담』을 비롯한 당대 야담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단순히 전사한 텍스트가 있는가 하면 긴장감이나 정확성을 고려하면서 변개를 시킨 텍스트도 있다. 이들 대부분이 한문으로 된 텍스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조선기담』은 한문 텍스트를 한글로 번역하여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이런 이유로 『조선기담』에는 전대 야담과 당대 야담이 모두 나타나고 있고, 전사와 변개라는 서로 다른 서술 태도가 드러나며, 한글로 쓰였지만 한문의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다. 이는 구할자

18) 이는 발행자가 한자 문화권에 익숙한 인물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대 이야기를 전사했는가 혹은 변개시켰는가에 따라 안동수의 위상은 다르게 정립된다. 전자는 발행자로서, 후자는 저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야담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sup>19)</sup>

『조선기담』은 구할자본 야담처럼 문헌을 통해 탄생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기억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기도 하다. 『조선기담』은 단군신화를 비롯한 신라, 부여, 고려의 시조 신화를 수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신화는 역사로 다루어진다. 『조선기담』은 단군부터 시작된 오천년간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구할자본 야담과 차별적이다.

『조선기담』의 역사성은 『조선기담』이 저본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 가운데 하나인 『오백년기담』과의 비교를 통해 잘 드러난다. 『오백년기담』 역시 시대순으로 180여 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 태조부터 12대 숙종 조에 걸친 역사적 인물들의 단편적 전기를 다루고 있다. 『조선기담』은 근세의 역사뿐 아니라 고대의 역사를 추가적으로 다룬다. 『조선기담』은 오백년간의 역사가 아니라 반만년간의 역사를 고려한다. 그렇다면 『조선기담』은 이렇게 폭 넓은 역사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을까?

『조선기담』에는 여성 관련 이야기가 다수 있다.<sup>20)</sup> 평양성에서 적장을 죽인 계월향, 축석루에서 적장과 죽은 논개 같은 의기(義妓)들 외에도, 살

---

19) 일반적으로 구할자본 야담들은 수록하고 있는 이야기 편수가 많다. 이는 동시대 출판된 다른 설화집 혹은 전래동화집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가령 이시이 미나미의 『조선설화집』이 81편, 조선 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이 25편,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 83편, 한충의 『우리동무』가 30편, 정인섭의 『온돌야화』가 99편의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다. 반면 『조선기담』은 104화, 『오백년기담』은 180화, 『실사총담』은 166화를 수록하고 있다. 구할자본 야담에 수록된 이야기 편수가 양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 야담들이 전대 야담을 전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한 편을 쓰는 데 공이 덜 들기 때문일 수 있다.

20) 최인화는 이야기의 분류 가운데 ① 효·열녀 와 ② 여인의 지혜에는 여성 관련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을 빼어 남편을 구하는 열녀, 정조를 유린당하고 자살한 열녀, 귀신을 물리친 신부, 투기 심한 흥언필 부인, 투기 심한 조태억 부인, 앉아서 천리를 보는 김천일 부인, 삼 일 안에 남편을 제어하기로 약속한 자매, 재상 부인이지만 잔치에 배치마를 입고 간 이정구 부인 등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다. 반면 『오백년기담』에는 계월향, 논개와 같은 의기 이야기와, 상민의 딸로 재상의 부인이 된 이장곤 부인, 아내 덕으로 공신이 된 이기축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이장곤 부인 이야기는 중종반정과 관련이 있고, 이기축 이야기는 인조반정과 관련 이야기이다. 『오백년기담』은 크고 작은 공식 역사, 즉 정치사를 중심으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다.

반면 『조선기담』은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개성이 분명하다면 그들에 대해 기록한다. 『오백년기담』이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다면 『조선기담』은 그러한 정치사를 일부 포함하면서, 세태를 보여주는 인물을 기록함으로써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런 지점은 <동아일보>의 『조선기담』 광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선기담』의 역사는 정치적 역사이기도 하지만, 충신, 열사, 효자, 절부 등이 보여주는 세태의 역사이다. 시간과 영역을 넘어서서 확대된 역사에 대한 강조는 역으로 『조선기담』에서 충신, 열사, 효자, 절부가 아닌 이들의 이야기마저 역사적 방식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투부, 호색, 창기, 열개화에 대한 이야기가 광고의 문구처럼 “소설식 역사”로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기담』은 고대-근세-당대라는 긴 시간 속에서, 미시적 영역 속에서 역사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조선기담』에서는 고대, 근세, 당대의 야담과 풍속이, 신화와 역사가, 정치사와 세태사가 뒤섞이게 된다.

『조선기담』은 내용의 다양성만을 가진 텍스트가 아니다. 여기에는 서술 방식의 다양성도 존재한다. 서술하고 있는 텍스트가 전대 야담인가 아

니면 기억된 현재인가에 따라 서술 태도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사와 번개, 모방과 창조, 번역과 수집(채록) 등 서로 다른 서술 태도와 방식들이 『조선기담』의 또 다른 혼종성을 구성해 낸다.

『조선기담』에서 서술된 내용과 서술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기담』은 전대 야담이나 근대 야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당대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에도 전근대적 이야기 관습은 영향은 미친다. 가령, 『조선기담』 25화에는 열녀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 열녀는 이웃사람에게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는데, 이 말이 “미신이나 최씨 귀에는 복음” 같이 들렸다고 기술한다. 이 악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최씨는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허벅다리를 자른다. 열녀의 정성으로 남편은 쾌차한다. 열녀가 남편의 병을 구원하기 위해 살을 베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조선시대 내내 전해진 전통적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근대적·기독교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유교적·전통적 이야기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조선기담』은 당대의 이야기를 기술할 때 “지나”(중국)나, 제대로 개화하지 못한 “얼개화군” 같은 동시대의 언중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된 텍스트를 번역·전사하는 경향이 높기에 ‘지인지감’, ‘산진해찬’, ‘애자지정’, ‘해연(駭然)’, ‘복색인마’, ‘고성대호’, ‘기품진종(奇品珍種)’ 등의 한자어의 빈도가 높다. 당대 언중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구술적 언어로 볼 때, 『조선기담』의 구술적 언어들은 전통 야담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언어에 비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기담』에서 당대 이야기를 기술 할 때에는 논평을 첨부하기도 한다. 가령 50화 <얼개화의 폐단이라>에서 잘못 개화된 사람들에 대해 “지금 세상에 이와 같이 되지 못할 얼개화군이 약간 있어

풍기문란한 말을 혹시 주창하니 이른바 한 고기가 물을 흐름이라. 어찌 개탄할 바가 아니리오.”라며 비판한다거나 33화 <서로 사양하다가 물건을 버리다>에서 “이와 같은 사람은 과연 정직한 인물이다. 지금 세상에 간상배가 낮은 물건으로 남을 속여 비리의 재물을 취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결연치 아니할는지.”라고 논평하는 식이다. 이런 논평들은 논평자가 당대의 풍속들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통적 미덕을 강조하는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기담』은 당대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도 전통적 미토스, 전통적 언어, 전통적 시각을 작동시킨다.

텍스트와 문화의 관계가 그러하듯, 『조선기담』 역시 당시 문화의 제반 조건 하에서 탄생했다. 『조선기담』은 이질적 문화들의 교차로처럼 보인다. 『조선기담』의 이런 혼종성은 당대의 문화와 닮아있다. 이는 텍스트가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 문화에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조선기담』에 대한 연구는 개별 텍스트에 대한 연구이면서도 그것을 산출한 구술과 기술 문화, 전통과 근대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기술과 구술, 전통과 근대가 교차된 것은 텍스트 뿐 아니라 당대 문화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조선기담』에서는 근대성보다는 전통성이, 구술성보다는 기술성이 우위에 있다. 이는 이러한 텍스트가 생산되고 향유되었던 문화 내에도 그러한 위계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조선기담』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1920년대, 근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존재하는 전통성, 역사성, 기술성의 우위를 읽어낼 수 있었다. 『조선기담』은 근대와 전통의 교차로, 그리고 상상과 역사의 교차로에 서서 그러한 과거의 지표들을 종합하고 명시하는 텍스트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서유영, 『금계필담』 (송정민 외 역, 『금계필담』, 명문당, 1985).
- 안동수, 『반만년간 조선기담』 (최인학 편저, 『조선조말 구전설화집』, 박이정, 1999).
- 이륙, 『청과극담』 (민족문화추진회 역, 『대동야승』 2권, 민족문화추진회, 1971~1979).
- 이원명, 『동야취집』
- 이희준, 『계서야담』 (유화수, 이은숙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 장지연, 『일사유사』 (국립중앙도서관 DB).
- 최동주, 『오백년기담』 (김동욱 역, 『교역 오백년기담』, 보고서, 2011).
- 최영년, 『실사총담』 (김동욱 역, 『국역실사총담』1·2, 보고서, 2009).
- 홍만중, 『명엽지해』 (정용수 역, 『고금소총·명엽지해』, 국학자료원, 1998).
- 『기문총화』 (김동욱 역, 『국역기문총화』, 아세아문화사, 1999).
- 『성수패설』 (이가원 편역, 『골계잡록』, 민중서림, 1950).
- 『청구야담』 (김동욱 외, 『청구야담』 1, 2, 교문사, 1996).

### 2. 2차 자료

-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0집, 민족문학사학회, 2002, 146~177쪽.
- , 「19세기 말~20세기 초 야담의 전개 양상」,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165~208쪽.
- , 「근대전환기 패설의 존재양상 : 1910~1920년대 패설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1집, 2005, 289~329쪽.
- , 「근대전환기 야담의 전대 야담 수용 태도」, 『한국한문학연구』 41집, 한국한문학학회, 2008, 595~631쪽.
- 이윤석 · 정명기, 『구할자본 야담의 변이 양상 연구-구할자본 고소설의 변이양상과 비교하여』, 박이정, 2001, 1~352쪽.
- <동아일보>, 1923. 01. 15. 1면, <동아일보>, 1923. 01. 24. 3쪽.
- <실사총담>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DB.

ABSTRACT

The Interaction of Orality and Literacy, Tradition  
and Modern in *Chosungidam*[朝鮮奇談]

Ryu, Jeong-wol

This paper investigates *Chosungidam*[朝鮮奇談] written by An, *dongsu*[安東洙] in 1922 which was published in company of Chosundoseojusik[朝鮮圖書株式會社]. This text have 104 stories which are different genres. The stories are sub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myths, folk tales and *Yadams*[野談]. This paper sees the hybridity as the *Chosungidam's* characteristics and studies the process.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why *Chosungidam* has the hybridity and how it is explained.

*Chosungidam* contains traditional and modern *Yadams*, ancient and recent histories modern stores and mythic stories. It includes stories and customs, myth and history, macro and micro history. The text presents diversity of narrating attitude as well as narrated stories. It is narrated by copy and change, imitation and creation, translation and collection(or recording). This paper rearranges the diversity in respect of orality and literacy, modern and traditional and concludes the traditionality, historicity and literacy gain an ascendancy over modernity and orality.

**Key Words** *Chosungidam*[朝鮮奇談], traditionality, historicity, literacy, modern time, *Yadam*[野談], hybridity.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